

# ‘셀토스 떨고있나’... 풀체인지 코나, 소형 SUV 접수 예고

현대차 5년만에 2세대 코나 선배 미래형 디자인에 첨단기술 적용 혁신적 상품성으로 3.7만대 목표 전기차 모델은 2분기 출시 예정

현대자동차의 대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가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 ‘디올 뉴 코나’로 돌아왔다. 지난 2017년 6월 첫 출시된지 5년 만이다.

현대차는 디올 뉴 코나로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소형 SUV 시장 공략에 고삐를 쥘다. 특히 새로운 디자인과 첨단기술 적용을 앞세워 3만 7000대라는 공격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기아 셀토스(4만 2983대)를 넘어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는 소형 SUV 코나 2세대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는 내연기관 모델을 설 연휴 이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은 인증 완료 시점에 고객 인도를 진행한다. 전기차 모델은 3월 중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올 2분기 출시 예정이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차급을 뛰어넘는 혁신적 상품성을 갖춘 코나를 통해 시장 판도를 깨는 한 단계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라이프



장재훈 사장이 18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진행한 코나 론칭 이벤트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스타일과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고객들의 삶에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디올 뉴 코나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주기 위해 외관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전기차를 먼저 디자인한 후 이를 내연기관 모델에 입히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매끈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전면부에는 굽김 없이 연결한 수평형 LED 램프가 주목된다. 측면부는 스포일러까지 이어지는 벨트라인과 19인치 휠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다. 후면부는 수평형 테일램프와 미려한 곡선이

눈길을 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 설계를 바탕으로 1세대보다 넓어졌다. 오픈형 콘솔은 깔끔한 실내 이미지를 구현하며 수납 실용성을 높인다. 기존 모델보다 약 30% 이상 커진 723L 화물 공간을 갖췄다. 전장(4350mm)은 145mm, 휠베이스(2660mm)는 60mm 늘어나 2열 레그룸과 숄더룸이 넉넉해졌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통합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전자식 변속 레버,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등도 추가했다.

디올 뉴 코나는 차별화된 경험을 선



2세대 코나 내연기관 모델 실내 디자인.

사하기 위해 편의 기능이 강화했다. 차량을 최신 스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수 있게 했으며,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 등을 장착했다.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코나는 충돌 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고강성 차체를 구현했다.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을 적용해 혹시 모를 사고에서도 탑승객을 지켜준다. 또 차량 옆쇠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디지털 키를 적용했다.

동력장치는 총 4 종류다. 가솔린 1.6 터보, 가솔린 2.0,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나뉜다. 가솔린 1.6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198마력, 최대 토크 27.0kgf·m이다. 복합연비는 L당 13km다. 가격은 트림별로 모던 2537만원,

프리미엄 2759만원, 인스퍼레이션 3097만원이다.

가솔린 2.0 모델은 최고 출력 149마력, 최대 토크 18.3kgf·m다. 복합연비는 L당 13.6km다. 모던 2468만원, 프리미엄 2690만원, 인스퍼레이션 3029만원이다.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고 합산출력 141마력, 최대 합산토크 27.0kgf·m다. 복합연비 19.8km/L다. 가격은 모던 3119만원, 프리미엄 3297만원, 인스퍼레이션 3611만원이다.

전기차 모델의 상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3월 중 상품정보를 공개하고 3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023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실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코나 전기차는 올해 2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현대차는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디올 뉴 코나는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차별화되는 도심형 SUV로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영패밀리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만족시킬 차”라며 “코나를 선택한 모든 고객들이 일상에서 진일보한 차량 경험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노태문 “새로운 갤럭시, 궁극의 프리미엄 선보일 것”

삼성전자 MX 사업부장 기고문 게재 갤럭시 울트라, 성능·품질 최고 중 최고



기술혁신을 거듭하며 우리 일상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며 “스마트폰 경험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서 만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프로급 카메라로 사용자는 주변 밝기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나 수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다”며 “삼성의 열린 파트너십 철학으로 탄생한 새로운 칩셋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최적화는 빠르고

강력한 갤럭시 경험을 제공한다”며 성능 강화를 설명했다.

또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의 울트라 모델은 성능과 품질 면에서 최고 중 최고”라며 “갤럭시 노트 경험을 울트라에 집약해 파워와 성능 모두에 최고의 혁신을 담았다”고 했다.

이어 노 사장은 삼성전자가 기후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신환경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성능 강화뿐 아니라 친환경까지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더 강력한 기능에만 추구한 게 아니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에도 집중했다”며 “더욱

사용할 수 있도록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만들고 제품의 모든 생애 주기를 고려해 보다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 사장은 “우리는 소비자가 성능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의 고민을 겪지 않도록 타협 없는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며 “삼성 갤럭시 언팩에서 궁극의 프리미엄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한국시각 2월 2일 새벽 3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3’을 열고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르노코리아 XM3 몰고 유럽 10만대 수출

XM3 9.3만대 등 총 9만8861대 창사 이래 해당지역 최대 수출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지난해 유럽 지역에 약 10만대 수출을 달성하며 창사 이래 해당 지역 최대 수출 물량을 달성했다.

르노코리아는 XM3(수출명 르노 아르카나) 9만3251대, QM6(수출명 르노 플레오스) 5088대 등 2022년 한 해 동안 유럽 지역에 총 9만8861대를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르노코리아의 전체 수출 물량 11만7020대의 84.5%를 점하는 실적이다.

르노코리아는 2021년 6월부터 본격적인 유럽 시장 판매를 시작한 XM3의

선전에 힘입어 2021년에 유럽 시장 수출 첫 5만대 이상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10만대 가까운 실적으로 유럽 수출 기록을 더 끌어올렸다. 지난해 XM3의 유럽 국가 별 판매량은 프랑스(3만3467대) 스페인(1만3936대), 영국(8325대), 독일(7785대), 이탈리아(7139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XM3는 지난해 유럽 시장 외에도 호주(2503대), 일본(1264대) 등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5033대, 남미 지역 882대 등 전세계 54개국에 수출됐다.

다만 르노코리아는 최근 자동차 전용 선박 확보난과 높아진 수출 물류비로 인해 수출 실적이 꺾일 위기에 놓여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삼성, 14인용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선보

외관 사이즈 유지, 식기 16개 늘려 맞춤 세척·추천 등 AI 기능도 추가

삼성전자 비스포크 식기세척기가 더 크고 똑똑해졌다.

삼성전자는 18일 14인용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외관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척할 수 있는 식기를 16개 더 늘렸다. 상단과 중단 바스켓을 상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맥스 플렉스(Max Flex) 3단 바구니’를 적용해 다양한 식기 종류와 크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적재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능도 새로 추가해 편의성



삼성전자는 14인용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도 높였다. ▲식기 오염도를 자동으로 파악해 물의 사용량과 온도·분사 세기 등을 조절해주는 ‘AI 맞춤 세척’ ▲ 자주 사용하는 세척 패턴을 학습해 추천하는 ‘AI 맞춤 추천’ 등의 기능을 적용했다. /김재용 기자



LG전자는 2023년형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에어컨’ 신제품을 19일 출시한다.

LG전자

## 더 강력하고 편리 휘센 업그레이드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에어컨 자동청정 강화, 펌케어모드 추가

LG전자가 더 업그레이드된 에어컨을 내놓고 일찌감치 여름 준비를 시작한다. 더 강력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모습이다.

LG전자는 2023년형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에어컨’ 신제품을 1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자동청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펌케어모드 등으로 편의성을 높여 개발했다. 특히 펌케어모드는 여름철 홀로 남은 반려 동물을 위해 개발됐다. 실내 온도가 설정값에 도달하면 냉방을 켜거나 원격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와이드케어냉방’을 사용하면 직접 바람이 닿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집안을 시원하게 유지해준다.

전력 소모도 최소화했다. 보급형 라인업까지 신제품 전 라인업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추가했다.

/김재용 기자 juk@